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다니엘 3:13-18, 누가복음 22:42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 일어난 사건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역사서이면서도 묵시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 전체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며 존경하는 인물이 다니엘이다.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친구들과 함께 겪은 사건을 기록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후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것과, 그 후에 일어날 재림과 심판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해 봉인한 기록이 다니엘서요, 봉인된 것을 연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쉽게 풀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

서론 : 다니엘서의 역사적, 영적 배경

(1)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까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배경이 있다. 먼저 역사적 사건들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다. BC 722년에,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이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 이스라엘의 인종을 완전히 섞어 버렸다. 그래서 북쪽 나라에서는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온 소수의 사람 외에는 다 혼혈이 되어서 북음도, 언약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사인을 먼저 많이 주신다. 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수십 명의 왕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하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니 결국 열 지파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깨달았어야 하는데, 남쪽 유다 왕들도 똑같았다. 의로운 왕 몇 명이 있었지만 다 불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 바벨론과 메디아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북쪽에 있는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공했고, 속국으로 만들게 된다. BC 613년의 일이다. 그 후로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남쪽의 애굽과 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은 애굽을 꺾는다. 이때 선지자들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유다의 왕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BC 604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것이 1차 포로 사건이다. 다니엘도 이때 끌려오게 되었다. 이때 포로된 자들은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었다.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볼모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2차, 3차로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속국 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힘드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유다 나라도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 대항하려 하니, 바벨론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 움직임을 막고 또 유다 백성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이다. 세 번째 시도로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서 독립하려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2~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면서, 군사력을 길러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장기간의 포위전 끝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성 안에서는 서로 자녀들을 잡아 먹기에 이르렀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 모든 기물은 빼앗기게 되었다. BC 586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3차 포로 사건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는데, 그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70년 후에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다. 이 70년의 기준은 3차 포로 사건인 BC 586년이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말한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BC 516년이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포로와 귀환의 역사]

구분	연대	유다 왕	포로된 주요 인물
1차 포로	BC 604	여호야김	다니엘 등
2차 포로	BC 596	여호야킨	에스겔 등
3차 포로	BC 586	시드기야	시드기야 등
구분	연대	페르시아 왕	귀환을 인솔한 인물
1차 귀환	BC 536	고레스	스룹바벨
2차 귀환	BC 457	아닥사스다	에스라
3차 귀환	BC 444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2)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벌하실 수 있느냐’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던 것이다. 영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 쿠퍼축제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6장에, 사단이 역사하니 인간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네피람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전염병이 돌면 가족들을 집단 폐사시키지 않는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동성

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도덕적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온다. 옛날에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사람들까지 가뒀놓았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 동성애는 네피람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멸종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랫동안 참으신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인간이 믿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 제양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계속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계속 인간이 불신앙하여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된다. 계속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는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음식에 조금씩 독을 넣어서 어느 날 죽게 만들고는, 그 남자에게 걸린 보험금을 타 가더라. 이런 여자를 절대 만나지 마시기 바란다. (웃음) 말에도 독이 들어간다. 독기 품은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죽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해독제를 우리는 주일마다 먹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기도수첩을 하면서 해독을 해야 한다. 악하고 독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대화를 보면 다 썩었다. 너무 심각하다. 생각, 마음이 너무나도 더러워졌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열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제양을 막는 의인 열 명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청소년이 게임에, 욕에, 불신앙에 중독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다니엘, 에스더 같은 의인 램넛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 인물이 되라는 것이다.

- ① 이스라엘의 첫째 영적 문제 우상숭배였다. 여러분, 성경은 안 보면서 TV는 계속 보고 있지 않나?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 독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이다. 가끔 한 번씩은 해독제를 드시기 바란다.
- ②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한 두 번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와 멸망, 제양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③ 제양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작은 문제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암이 되고 사업의 부도가 된다. 작은 문제라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와도, ‘그래, 오겠지’ 하고 말아 버린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작은 문제 속에서도 듣게 되시기를 바란다.
- ④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는, 창3, 6, 11장에 있는 오래된 문제, 행13, 16, 19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피 언약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최목사님도 아프리카에 다녀오셨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약국으로 데리고 간다. 말라리아 약을 먹게 하는 것이다. 그 약이 있으면 말라리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약을 다 가지고 있다. 좀 열이 나면 그리스도 한 방 맞는 것이다. 열 사람이 문제 좀 있으면 그리스도 한 알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한다. 전인종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고백했는데, 운명 사주 팔자를 보면 완전히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고백을 믿으시기 바란다. (웃음) 답이 있으면 겁낼 것 없다. 결론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본론 : 다니엘서 장별 요약

본론에서는 다니엘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을 요약하려고 한다.

1.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온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했는가? 채식을 꼭 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다. 고기를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이 본문의 말은 채식을 하지는 말이 아니다.

(1) 램넛트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고난을 당해 서가 아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원래 귀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끌려왔어도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었다. 환경이 좋다고 신앙을 놓치는 어리석은 램넛트가 되지 말아야 한다. 환경이 좀 좋다고 연애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아는 지혜로운 인물들이었다. 시대적인 천명, 소명, 사명을 알았기에, 대단한 왕 앞에서도 당당히 뜻을 정한 것이다. 그 신하들에게 담대히 시험을 해 보라고 제의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곽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여러분, 화장빨 말고 성령충만의 은혜로 피부가 좋아지시기 바란다. 속이 안 좋으면 아무리 발라도 화장이 뜨게 되어 있다. (웃음)

(2)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간절한 눈물의 메시지를 붙잡았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보면, 요시아 왕 13년 때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20년 전부터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나는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천 명, 2천 명의 병사들에게 설교를 했다. 정훈교육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라는 것이다. 한 번 나가서 했더니 다음에 계속 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시간 때워야 하나가 계속 하라는 것이다. (웃음)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했다. 그때 열 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전부 술, 담배를 끊게 만들었다. 방위병은 퇴근을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퇴근 후에는 독서토론회를 하고, 고아원에 가서 공부를 가르쳤다. 50여 명이 그 덕분에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뜻을 정하라.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뜻을 정하라.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소명, 천명이 너무 큰데, 겨우 육신의 작은 쾌락에 끌려다니는 수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뜻을 정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시기를 바란다. 야동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웃음) 그러나 뜻을 정하여,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다고 하나님이 비락을 치시지 않는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시대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사명자, 리더가 우리 성도 중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시대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도 바꿔야 한다. 짜질하게 살면 안 된다. 끌려가면 안 된다. 결단하라. 여러분이 사는 문화,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과 관계없이 쓰실 것이다.

2. 바벨론에서 일어난 역사

(1) 2장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다. 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깨뜨리고 천하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 박사와 술객을 다 모은 다음에, 자기 꿈을 해석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해석해 보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지 않다.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때 일어나서 자기가 해석할 테니까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은 이 꿈을 알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해석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무를 꿇게 될 것이다. 단2:47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이 고백을 한 것이다.

(2)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해 놓고도 금방 마음이 바뀌었다. 금신상을 만들어놓고는 여기에 다 절하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하는가? 그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다. 인간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 4장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의 환상을 보게 된다. 다니엘이 해석해 준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신문제가 와 버린 것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어느 날 빼앗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안 되는구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회복되게 된다. 대단한 권력자들까지 깨우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 바사에서 일어난 역사

(1)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술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전부 너무나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임금님의 할아버지 때에 지혜로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불려서 물어보자고 한 것이다. 이때 다니엘은 이미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였다. 그 다니엘을 불려서 해석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 보니까 당신은 부족하다고 판정되었으며, 당신의 나라는 쪼개어져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날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분봉왕이 된다. 어떻게 바벨론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대-바사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잔치자리에 이미 벨사살을 죽이려 하던 암살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 암살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준 다니엘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2) 이렇게 해서 즉위한 다리오는 당시 62세로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는 외삼촌이 된다. 당시 메디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노아의 손자인 마데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 그 나라의 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소변을 보았는데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점쟁이에게 물어보니까,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딸을 아주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 시집을 보내 버렸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자란 예언의 주인공인 궁주의 아들이 결국 작은 페르시아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메디아 나라를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대-바사, 즉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어머니의 오빠가 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다. 고레스가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전쟁에서 차지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왕족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왕위 계승자인 다리오를 자기가 정복한 바벨론으로 보내어 분봉왕이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 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것 공부하느라고 나는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웃음) 여러분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궁금해하거나, 신학생이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웃음) 여러분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먼저 찾아서 알려드린 것인데, 여러분이 잘 붙잡고 현장에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장면을 목격했으니, 바벨론의 분봉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계속 중용한 것이다.

(3)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바사 기존의 신하들은 이것을 두고 자연스럽게 시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조사해도 약점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를 찾아가서, 30일 동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왕단을 신으로 섬기도록 법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나라를 새로 세운 상태니까, 다리오 왕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여기에 다니엘이 걸려들게 된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대해 알면서도 평상시와 같이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다. 당장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죄 없는 다니엘을 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

4. 미래에 대한 예언들

7장에서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차 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150가지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하며, 지금도 다니엘서에 나온 환상과 예언들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예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하게 이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날과 그 때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 오직 복음만 전하면, 시대를 앞당기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기보다는, 그 날과 때에 신령 쓰시 말라는 것이다. 바른 복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 다니엘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

결론을 내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인가?

(1) 첫째,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단7:14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2) 둘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 이 고백은 나를 완전히 버린 고백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계 안 해도 됩니다. 승진 안 해도 됩니다. 병 고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썼는데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자녀와 우리 램버트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란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 고백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이요, 내가 죽어도 이것으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의 고백이다. (3) 셋째,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즉, 전도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단12:3, 전도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중요한 요절이 단1:17인데, 우리 램버트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다. 다니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단1:17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후대가 함께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한 저희를 불러 주시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시대와 문제 속에서도, 어떤 강한 권력과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을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악화되고,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램버트들을 축복해 주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남는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나이다. 아멘.”